

중국서 불어온 자본물결에 '흔들'

interview

700여 대중 이끄는 철방사 주지 토미룸부치 스님



"그 전에는 만 명이 머물렀을 정도로 규모가 컸지만 지금은 700명이 공부중입니다. 생로병사를 초월하기 위해 우리 모두는 수행해야 합니다." 9월 20일 라싸에서 머문 지 3일째 되던 날 만난 철방사 주지 토미룸부치(65·사진) 스님은 "윤회는 티베트불교의 특징이 아니라 자연 법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보리도차제문을 교본삼아 계정해를 실천하고 자비심을 키워 스스로 생사윤회에서 초월하도록 공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 생로병사에서 벗어나는 길은 수행 뿐입니다 ”

5세에 출가한 스님은 7년 전부터 철방사 주지를 맡아 대중을 이끌고 있다. 스님의 방은 700명을 대중을 이끄는 주지스님의 방이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소박하다. 대중을 이끄는 데 어려움이 없느냐는 질문에 "힘든 점은 없다.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스님들 스스로 본래면목을 찾기 위해 수행하는 것이다. 나는 하는 일이 없다"며 웃어 보였다. 티베트에서는 주지스님이라고 따로 대중을 위한 법문을 하는 경우는 없다. 스스로 깨달음이 없으면 법문을 해도 스스로에게는 물론 대중에게도 아무 이익이 없기 때문에 경율문을 모두 배워 자격을 갖춘 법사 스님만이 법문을 하게 돼 있다. 그러나 1년에 한번, 음력 7월 15일에는 주지스님도 불경학 관권을 외워서 대중들을 위해 독송해야 한다. 2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부단한 공부를 강조할 뿐 말을 아끼던 토미룸부치 스님은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한국 불자들을 위한 축원을 잊지 않았다. "뜻하는 것을 모두 이루고, 건강하고 평화스러우며 생로병사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B10면에서 계속

의 지배아래 놓인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대규모 자본과 정부의 지원아래 한족들은 부를 축적하게 될 것이고 장족들은 한족의 부를 채워주기 위한 부속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티베트의 중국화는 소라 없이 진행되고 있다.

관광객 석달만에 50%이상 증가

티베트가 청장엄차 때문에 파괴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청장엄차를 타고 티베트에 온 중국인들의 내면에도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있다고 가이드는 설명했다. "중국 본래 종교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엄차로 인해 티베트와 중국이 서로 왕래가 쉬워지면서 중국인들이 티베트 불교에 대해 새롭게 눈을 뜨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했다. 실제로 북경에서 왔다는 김전룡(53) 씨는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가까이서 보니 느낌이 새롭다"고 말했다. 하늘길로 이어진 티베트와 세상은 서로의 존재에 서로를 비취가며 인연지어져 간다. 돌이킬 수 없는 변화 앞에 놓인 티베트는 거대한 인드라망에 매달린 하나의 구슬이다.

오체투지의 땅 '라싸'

성스러운 땅, 라싸는 윤회의 큰 원을 그리며 세계방 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청장엄차의 개통으로 급속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가지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장족의 전통 의상을 입고 오체투지를 하며 순례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또 하나의 풍경이 돼 있었다. 라싸의 상징인 포탈라궁, 문성궁주가 모여있었다. 12살의 석가모니 불상이 모셔진 대소사, 티베트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찰인 철방사(哲蚌寺) 어디를 가든 마니차를 돌리며 세계방향으로 돌고 있는 사람들을 만난다. 그들이 만드는 원형은 생사윤회를 반복하는 인간의 굴레를 의미하는 것인 동시에 그 굴레를 벗어나길 바라는 초월의 몸짓이기도 하다. 생사윤회의 끝없는 자맥질을 이어가는 그들이 꾸러가는 삶이란 풀잎 끝의 이슬 같은 환연에 불과한지도 모른다. 그래서 몇 달 동안 오체투지를 하며 라싸를 향한 순례를



포탈라궁 앞에서 보다 나온 내생을 기원하며 오체투지로 하루를 여는 티베트 불자들. 신심이 하늘보다 높아보인다.



라싸 시내 곳곳에 진짜 스님인지 가짜 스님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이들이 경을 외우며 앉아 있다. 여행객들은 환전소 대신 그들 앞에 놓인 소액권 지폐로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어 '거리의 환전소'로 통한다.

하고, 평생 동안 모은 재산을 절에 보시하고 거지처럼 걸식하며 고행으로 돌아가는 고행을 멈추지 않는다. 티베트인들에게 이 생은 보다 나은 내생을 위한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대소사를 중심으로 형성된 순례길인 바코르 광장에는 몇 달 전 혹은 몇 년 전부터 고행을 떠나와 오체투지를 하고 있는 남녀노소로 불린다. 라싸에서 270km 떨어진 낙후에서 왔다는 조모씨는 보름동안 라싸에 머물며 오체투지로 보다 나은 내생을 기원하고 돌아갈 예정이다. 라싸에 살고 있다는 60세가 넘는 토지씨는 6명의 가족들과 함께 바코르 광장을 돌고 있다. "아침에 11바퀴를 돌았고, 저녁에는 20바퀴를 돌 예정"이라며 "6살 때부터 돌기 시작했으니 바코르 광장을 도는 일은 죽기 전에는 멈추지 않을

내 생활의 일부"라고 말했다. 삶과 죽음조차 단절이 아닌 순환임을 굳게 믿는 절대적 믿음위에 세워진 티베트 불교의 중심에는 달라이라마가 있다. 그러나 인도 망명정부에서 돌아올 수 없게 된 달라이 라마의 현실은 급격한 변화 앞에 떠밀려진 티베트의 현실과 닮아 있다. 주인 잃은 달라이라마의 겨울 궁전인 포탈라궁과 여름 궁전 노브린카는 날로 들어가는 관광객들이 주인 대신 차지하고 있다. 총 13층인 포탈라궁은 중국 정부의 문화재 보존이라는 명목으로 주인 없이 죽어 있는 공간이 돼 버렸다. 라싸의 불교는 겉에서부터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각 사찰마다 정부가 임명한 스님들이 관리인처럼 절을 지키고 있을 뿐, 수행하

경·울·론 묻고 답하며 공부 점검...관광객 눈길 잡아

■ 색랍사 스님들 싸우세요? 색랍사에 가면 출가 후 3년 이상 공부한 스님 중에 대중에게 들어가 예불을 볼 수 있는 스님만이 참여하는 공부의 장이 있다. 종가바 대사가 황교를 창시할 당시부터 스님들의 공부를 점검하는 수행의 한 방법이었던 이 토론의 장은 5대 경, 울, 론에 대해 배운 것을 스님들이 서로 묻고 답하는 행식을 취한다. 티베트의 여러 사찰에서 일반에 공개되지 않고 행해지고 있는 공부법이지만 색랍사에서는 관광객들을 위해 스님들이 서로 묻고 답하며 공부를 점검하는 모습을 공개하고 있다. 박수를 치며 큰 소리로 질문을 주고받는 모습은 마치 싸움을 하는 듯도 하고 춤을 추는 듯도 해 보이는 이를 당황하게 만들 정도다. 어쩐지 보여주기 위한 해프닝 같아 진지함이 덜하지만 싸움을 하듯 서로의 공부를 점검하는 공부법이 실제로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하니 티베트 불교의 숨은 생명력을 발견하게 된다.



색랍사의 스님들이 토론의 정원에서 경율론에 대해서 서로 묻고 답하고 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1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포항, 흥해, 칠포 대원사 성지순례

신비의 상징, 길상의 상징, 불법을 수호하는 신 용, 인도에 사는 용 종족들이 숭배하는 신화의 용 대한민국 최초로 거대한 용을 조성 하였습니다. 용의 배속에 천불전 일천불 부처님이 타고 계시며 용의 몸통속에 삼천불 부처님을 봉안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최초 최대의 용이 탄생하였습니다. ◆이곳방생지 - 칠포해수욕장. 보경사는 15분거리

용의크기: 넓이 2.0미터, 높이 2.5미터, 길이 108.0미터

「중국에 가셔야만 탈 수 있는 용, 우리나라에서도 탈 수 있습니다」

사바세계 일체중생은 신비의 용을 친견 함으로써 번뇌 망상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일체중생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관세음보살님 42수 진언의 소원 성취를 증득하실 길정이 바로 칠포 대원사 성지순례입니다. 전망은 푸른바다와 들뜬, 뒤로 수려한 명산이 병풍처럼 둘러 싸인 곳. 이곳이 바로 성지순례의 궁극, 길지라 하옵니다.... (용꿈 꾸세요)

문화관광부 사단법인 제141호 현물총 02-44호 등재

대한불교 (禪) 선종 총림, 포항칠포 대원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 607번지 전화 : 054)261-7777 / 팩스 : 054)261-6119

현대불교신문 창간 1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설악산 등해사 범우광명 기념

봉영산대재행

일시 : 불기 2550년(2006년) 10월 29일 (오전 11시 - 오후 4시)
장소 :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156번지 등해사
전화 : 033)672-2900

- 주최 : 의륜 문도회
- 주관 : 등해사
- 후원 :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연합불교방송 · 전통의식교육원
- 협찬 : 불탑사 상원사 정각사 청정사 자비사 호심사 광진사 혜명사 천도암 백화사 서련사 삼성암 소림사 서원사 송암정사 봉황사 법성사 성락사 와불사 천왕서원 구인정사 인천혜명사 용천사